

세상에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으랴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던 날들 흘러가고
고민하던 사랑의 고백과 열정
모두 식어가고
일상의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사랑을 말하면서
근사해 보이는 다른 부부들 보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관습에 충실한 여자가 현모양처고
돈 많이 벌어드리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라고 누가 정해놓았는지
서로 그 틀에 맞춰지지 않는 상대방을
못 마땅해 하고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귀찮고 번거롭고
어느새 마음도 몸도 늙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헤어지자 걱정하고
아이들에게 누구하고 살 거냐고 물어보면
열 번 모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 짓고
비싼 옷 입고
주렁주렁 보석 달고 나타나는 친구
비싼 차와
풍광 좋은 별장 갖고 명함 내미는 친구

까마득한 날 흘러가도
움자받은 돈 갚기 바빠
내 집 마련 멀 것같고
한숨 푹푹 쉬며
애고 내 팔자야 노래를 불러도
어느 날 몸살감기라도 호되게 앓다보면
빗길에 달려가 약 사오는 사람은
그래도 지겨운 아내, 지겨운 남편인 걸
가난해도 좋으니
저 사람 옆에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하루를 살고 헤어져도
저 사람의 배필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시든 꽃 한 송이 굳은 케익 한 조각에 대한
추억이 있었기에..
첫 아이 낳던 날
함께 흘리던 눈물이 있었기에..
부모喪 같이 치르고
무덤 속에서도 같이 눕자고
말하던 날들이 있었기에..
헤어짐을 꿈꾸지 않아도
결국 죽음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있을 것이기에..
어느 햇살 좋은 날 드문드문 돌기 시작한
하얀 머리카락을 바라보다
다가가 살며시 말하고 싶을 것 같아
그래도 나밖에 없노라고.....
그래도 너밖에 없노라고....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비보 같은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16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4월 18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박동현



중세 유럽에서 한 유대인이 무서운 박해를 피해 아나와 어린 자식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 간신히 어떤 바위섬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아내가 번개에 맞아 죽고 자식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자신도 폭풍우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은 세상의 주님,
제가 이리로 피난 온 것은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신의 계명을 따르며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제 신앙을 저버리고 당신을 배반하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시는군요.
당신이 여러모로 저를 시험하여
저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결코 성공하시지 못하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게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앗아가실 수 있고
저를 죽음에 이르도록 괴롭히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언제나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하늘 뜻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어떤 재난을 내리시든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남편 기 살리는 말▶

“이제, 제가 나서볼게요!”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맨날 말만 잘하지”

◀아내 기 살리는 말▶

“역시 나는 처복이 많아 ”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짜는 소리좀 하지 마!”

◀그땐 그랬지▶ 풍금이 있던 교실

하나같이 목 뒷선이 하얗게 드러난 단발머리 여자 아이들과 등성등성 기계충 있는 뺨뺨머리 남자아이들이 있던 교실에는 그들 마음만큼 맑은 풍금소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몇 대밖에 없는 풍금인지라 음악시간이 되면 복도에 내어진 풍금을 교실로 옮기고는 얼른 검은 건반만 가지고도 멜로디가 되던 “아리랑”을 쳤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 끊어질 듯 이어지던 풍금소리가 있던 교실, 이제 한번쯤은 턱없이 낮아진 그 때의 걸상에 앉아 덧칠해진 세월의 야속함을 되 짚어 보고 싶습니다.



(* 표에 형이시기 어려움 믿음을 갖고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예배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성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도자

*찬송
Hymn

31장

다 같이

*찬시교독
Response Reading

43 (마태 6장)

다 같이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같이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36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마가복음 4:35-41

인도자

Scripture Reading

찬가대 찬양
Choir

칼리리 바다위에서

김선국 목사

설교
Sermon

찬송
Hymn

433장

인도자

회개기도
Offering Pray

"이 믿음 더욱 큰 세라"
(1월 10일)

다 같이

도
Benediction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를 갖습니다)

◆ 4월의 예배위원 ◆

원자 기도	한근위원	현것이
4	박영영	김경림
11	이원희	박하림
18	이규원	박혜련
25	이재영	백재성
		10구역

'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만수대로 하면 손해본다. 그래도 참아본다

*누구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도 아버지를 복인다

*3주간 예배, 전교차석 이후에

특별 자석이 주어집니다

*여학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를 판단이 됩니다

1. 교우소식

- <위로> 정선호 전사. 한국에 계신 부친 장례마치고 귀국. 한국에서 만남 소망
의 말과 사랑으로 위로의 마음 전합니다.
- <동체 말씀 보았습니다> 김덕준, 서원선 성도.
<응답> 최광만, 김공복 성도(4남여선교회). 유종, 하영
- 520-5348 ☎ 60 B Lingarth St. Remuera
2. 우리는 제2여성교회에서 "은 선자가 선가대"를 구성하여 찬양드립니다.
*제2여성교회: 1950-1955년생.
3.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19일(월) 오후 1시 Hall
*환자 기도하기에도 힘들지만 어려움 때, 위에서 믿음의 어머니들께서 기도하고 있
음을 잊지 마세요.
4. "부활절 봉헌 손으로 쓴 영어성경"을 Hall에서 전시합니다.
5. 교회건축: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Hall건축을 위해 기도
해 주십시오. 교회영건축헌금은 5월까지 헌금함에 함께 드립니다
6. "치유를 위한 특별 중보새벽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경우 잊지 마시고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아동부 Term Break Activity: 영화관람 *20일(화) 오전 10시. Glenfield "HOYTS"
8. 기독교실용 주최, 영란 부활음역회 에 칼리리의 여러 교우들께서 참가합니다.
*24일(토) 저녁 7시. 한우리교회(59 View Rd. Glenfield)
9. 새벽기도회 <원시> 매주 금요일 새벽6시(교회당문은 5:20분에 Open)
*행사에는 전과 가까운 교회나 권의 조용한 곳에서 새벽기도 드리십시오
*그래도 영주행에 하부종은 우리교회당에서 우리교회와 교우를 많이 생각하
며 드리는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거나 북새가 쾅은 새벽엔 가까운 교회에서 드리세요.

▶취한 서인철▶가슴을 사랑하는 남자

한영철
(제4남선교회원에게 보낸 영박형 전사인의 메모)

편리한 삶보다는
평범한 삶이 더 그리워지는
가슴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다가왔다.
코스모스의 향기와도 같은
부채지 않은 하얀으로
웃어 한
꽃피는 물음소리 가득한 계절 속에
가슴을 사랑하는 남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는다.

아시는지요?

남편들의 가슴은 가슴에 사랑쁨으로
메어진다.는 것을.
색으로 물든 나뭇잎에 두렵고 무거
운 어깨는 감추고 섰음으로 뛰는 가
슴을 열고 싶다는 것을.
어느새 다 커버린 어깨에 부등매우
고 들거워할 기회를 주지 않는 아이
와 이젠 편함을 끼고 싶다는 것을,
주름자른 눈가에 진 아내의 잔수름
웃어 한
꽃피는 물음소리 가득한 계절 속에
가슴을 사랑하는 남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는다.

로 다가서 주십시오.
하는 남편에게 옛 다소곳한 연인이
이런 가슴엔 강인척 외롭게 보내야
적인양 미안해 한다는 것을....